#### 제9편 이만제단시대 제6부

–.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 중생들에게 귀의처(歸依 處)를 주기 위한 방편이다

- 1) 생명이 죽으면 끝이 나고 소멸 되는 것이다
- 2) 중생들에게 귀의처를 주기 위한 방편이다
- 3) 완성자 출현시까지 모든 중생들 에게 한 종교의식은 다 속임수로 인 류를 이끈 것이다

#### 二. 중생들에게 귀의처(歸依 處)를 주기 위한 방편이다

완성자(完成者)가 오시기 전의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된 것이요 방편이다. 아 무리 거룩하게 사랑으로, 어진 마음으 로(仁),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인류에게 공헌을 해서 대 성인으로 숭 상함을 받았다 해도 그분들의 모든 행 위는 다 거짓된 것을 했을 뿐이다.

육은 죽어도 영은 극락·천당간다고 알려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말도 다 거짓된 말이고 방편이었다. "구 세주는 양의 문이요 구세주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요10:7-8)"라는 말씀처럼 구세주 오시기 전의 모든 행 위는 다 쇼를 한 것이고 중생들에게 일 시적인 마음의 귀의처(歸依處)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었다.

#### 1) 생명이 죽으면 끝이 나고 소멸되는 것이다

생명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다. 죽 은 후의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은 다 거 짓이요 방편이다. 중생들 즉 인간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죽어가게 한 것이다. 생명이 죽 는 것은 죗값이라고 했는데(롬6:23. 롬 5:15) 죗값으로 죽어 소멸되는 것이다.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8회)

## 전도관 제9편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욥기 14: 10),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욥기 14: 14),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하리라(이사야 26:14).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사망의 신인 마귀가 생명을 틀어쥐고 죽이고 있는 것인데 죽어 천당 극락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막 12:27. 눅 20:38)"하 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 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 계신 하나 님인 것이다.

전도관 영모님의 역사도 예정된 구세 주를 찾아 완성시킨 것외엔 사람을 살 리는 역사가 아닌 거짓된 쇼를 한 역사 였다. 영모님을 통해 생수 발라 피어가 는 전도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천당 가는 모습이라고 한 말도 다 쇼를 하신 말씀이다. 결국 1980년에 가서 영모님은 생수 발라 피어간 사람들이 한 명도 천 당 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선언 하셨다. 이미 완성자 구세주가 출현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신이 쇼를 하신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주신 것이

죽는 것은 죗값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죄 즉 미귀 때문에 죽는 것이니 곧 미귀가 죽이는 것이다. 죽는 모습이 아름답건 흉측하건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죽으면 다 소멸 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100%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 의 신인 마귀에 의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죽음의 신 마귀를 이겨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신 미귀를 이기는 구세주를 세우시기 위하여 6000 년을 기다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인 것이다(눅20:38).

## 2) 중생들에게 귀의처를 주기 위한 방편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불 교인들도 다같이 극락을 꿈꾸면서 불자 의 도리를 다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것이다. 죽으면 소멸되어 없 어지는 원리는 불자들도 다 동일하다.

불자들은 고승들이 죽어 시신을 화장 한 후에 나오는 '사리'라는 것이 고승 들의 높은 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처럼 야단을 하고 있으나 죽는다는 것 자체 가 죽음의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인데, 죽은 후에 나온 '사리'란 것이 무 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사리가 나온 고승이란 사람도 또는 평범한 불자들이 란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죽음자체는 죽음의 신인 마구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다.

전도관의 영모님이 생수 발라 피어가 는 신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천당가는 모습이라고 그토록 강조하시다가 완성 자가 출현하니까 "생수 발라 아름답게 피어 갔다 해도 천당 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당신의 말을 뒤집어 엎어서 말 한 내용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죽을 때 아름답게 하고 죽든 흉측하게 하고

죽든 또는 사리를 많이 남겨놓고 죽든 사리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죽든, 죽는 다는 것 자체는 다 같은 죽음의 신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다.

죽음 자체가 다 사망의 신에게 잡혀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다 소멸되 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로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외의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삿 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각종 종교에서는 하나같이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완성자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죽음 자체 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 지 인간들 즉 중생들에게 마음의 귀의 처(歸依處)를 주어 안정된 마음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불경에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겠다.

我今此身 歸依於佛 若卽此身 得成佛道 아금차신 귀의어불 약즉차신 득성불도 旣成佛已 不當恭敬禮拜供養於 기성불이 불당공경예배공양어 諸世尊何以故諸佛平等爲衆生作 제세존하이고제불평등위중생작 歸依故亦令衆生於我身中起塔廟想 귀의고역영중생어아신중기탑묘상 禮拜供養如是衆生以我法身爲歸依處 예배공양여시중생이이법신 위귀의처 一切衆生皆依 非真邪僞之法 일체중생개의 비진사위지법 (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4-5)

해설: "나도 이제 이 몸으로 저 부처 에 귀의하여 불도를 얻으리라. 만약 내 가 이미 부처를 이루었다면 여러 세존 에게 공경・예배・공양을 시키지 않았 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는 평등

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배공양을 시킨 것은 중생을 위해 귀의처를 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또한 중생들이 내 몸 을 향해 탑을 세우고 사찰을 지어 불상 을 모시고 예배공양을 하며 나의 법신 을 귀의처로 삼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참이 아닌 삿되고 거짓된 법이다."

위의 불경에서 석가가 하고자 한 요지 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석가도 성불 못하였고 저 부처 즉 완성불 되는 미륵불에 귀의하겠다. 석가 자신이 성불 못했기 때문에 자신 도 미륵불에 귀의하여 성불하겠다는 뜻 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모든 중생의 귀 의처가 못됨을 알리고 있다.

둘째, 석가가 예배・공경・공양을 시 킨 것은 중생들에게 귀의처를 주기 위 한 방편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신 이 중생들에게 참 귀의처가 될 수가 없 지만 그러나 의지처가 없는 불쌍한 중 생들에게 완성불이 나올 때까지 방편으 로 자신을 의지처로 하게 하여 위안을 주려고 한 것이다.

셋째, 중생들이 내 몸을 향해 탑을 세 우고 절을 지어 불상을 모시고 예배 공 양을 하며 나의 법신을 귀의처로 삼는 것은 참이 아닌 삿되고 거짓된 법이다.

자신의 법신을 중생들에게 귀의처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 석가는 그러 나 석가 자신의 법신을 귀의처로 삼아 예배 · 공경 · 공양을 하는 것은 아무 쓸 모가 없는 삿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사 실을 밝힌 것이다.

이 말을 요약 정리해 보면 완성불이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남을 속이

고, 법을 이리저리 피해서 순간의 이익

과 명성만을 추구하느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해악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니

사회가 각박하고 사람이 사람을 못 믿

진실로 이 사회가 좀더 나아지려는 사

회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면, 얄팍한 시

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스럽고 어리석

게 보이는 것 같으나, 항상 바르고 선하

게 옳은 길만을 고수하는 양심적인 지

혜를 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도인

과 성인이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그런 삶만이 이 땅위에 신세 계, 이상향, 지상천국, 무릉도원의 세상

이 전개될 것이다. 노자의 무위자연과

불로장생의 도를 공부하는 의미와 목적

이 다 여기에 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자연을 닮고자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사람에게서 자연과 같은 향기가 나고

꽃과 같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마음들을 만들어야 한다. 꽃과 같은 마음들이 모

여 꽃 천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노자

는 불신의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다.

나타날 때까지 방편으로 석가 자신의 법신을 귀의처로 하여 예배・공경・공 양을 하게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다 거 짓된 것이고 삿되고 거짓된 법이라고 한 말이다. 그러니 차제에 이 말씀의 진 의를 깨닫는 불자들은 사찰을 버리고 완성불인 생미륵불을 찾아 달려와야 할 것이다.

#### 3) 완성자 출현시까지 모든 중생들에게 한 종교의식은 다속임수로 인류를 이끈 것이다

완성자 출현 전까지는 모든 것이 방편 이었고, 사실이 아닌 쇼를 한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완성자 출 현 전까지는 누구도 죽음을 막아 죽음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 짓으로 눈속임을 해온 것이다. 생수 발 라 아름답게 피어 간 사람도, 또 죽어 '사리'라는 것을 많이 남겨 놓고 간 사 람도 다 중생들에게 눈가림한 쇼를 하 고 사라진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해할 수가 없는 말로 들릴 것이지만 사 실이 그러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 세주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들이다(요 10:8)라고 말한 것이다.

전도관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분의 발 자취를 따라 살펴보면서 박태선 영모님 의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많이 소개하

그러나 불성령 생수성령 이슬성령을 인류 최초로 받아 증거한 분이지만 그 분 스스로도 죽음을 극복 못하시고 가 시니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가! 오직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자 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의 현묘한 도가 아니겠는가!

古之善爲道者(고지선위도자): 예로 부터 도를 잘 닦는 사람은

非以明民(비이명민): 백성들을 똑똑 하게 하지 않았고

將以愚之(장이우지): 되레 우직하게

民之難治(민지난치): 백성들을 다스

리기 어려운 것은 以其智多(이기지다): 그 꾀가 많아서

故以智治國(고이지치국): 예부터 지

모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國之賊(국지적): 나라에 적이 생기고 **不以智治國(불이지치국)**: 지모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國之福(국지복): 나라에 복된다.

知此兩者亦稽式(지차양자역계식): 이 양자가 또한 기본 법도임을 알아야

常知稽式 是謂玄德(상지계식 시위 현덕): 항상 기본 법도를 아는 것을 현 묘한 덕이라 한다.

玄德深矣遠矣(현덕심의원의): 현묘 한 덕은 깊고 원대하여

與物反矣(여물반의): 물질주의 관점 에서 보자면 반대되지만

**乃至大順(내지대순)**: 이내 큰 순리에 이르게 된다.\* 김주호 기자

### 이만제단 시대 제6부

# 도덕경 해설

# 古之善爲道者

고지선위도자

## 예로부터 도를 잘 닦는 사람은

### 도덕경 65장 해설

사람의 앎(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앎은 그냥 앎이다.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 은 잘 모르는 소리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은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 가 쉽게 납득이 간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단 순한 지식이 아닌 지혜가 쌓여서 그렇

어릴 적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 없이 배운 것은 지식에 해당된다. 지식은 흔 히들 융통성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한 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사회 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지식의 얘기지

때문이다. 이를 보아 똑같은 앎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도를 닦으면 이 지혜의 문으로 직접 통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 혜는 지식과 달리 사람과 만물을 모두 이롭게 만든다. 반대로 지식은 그렇지 못하다. 굳이 지식과 지혜의 인과를 구 분해서 본다면, 지식의 하나는 마음으로 느껴서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머 리를 굴려서 아는 것이 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은 순수본성(양심)에 입각한 앎 으로 지혜가 되고, 머리로 아는 것은 속 된 말로 '잔대가리 굴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 꼼수와 같은 의미이다.

> 머리를 굴려서 아는 앎은 얄팍한 앎으로

의 이익과 유리함만을 꾀하는 지식이고, 마음으로 느껴서 아는 앎은 따뜻한 피 가 흐르는 인간미 넘치는 지혜일 것이

사람이 잔꾀를 부리면 긴 안목과 넓은 시야가 사라져 당장 일신의 안일과 명 예만을 집착하게 되며, 잠시잠깐은 흥하 는 것 같으나 패가망신하는 지름길로 드는 길이다. 요즈음 신문의 사회 지면 을 장악하는 이슈 중에 얄팍한 지식으 로 돈과 명성을 좇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와 다르게 지혜를 얻으면 눈앞의 이 익이나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항 상 정의와 대의,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따라 움직이

찬과 격려로 길이길이 일신을 보존하고 그 이름이 하늘 높게 높아지게 되는 것 이다. 그런 사람이 성인이고 도덕군자 다. 세상을 바르고 올곧게 사는 것이 지 혜로운 자, 도인의 삶이라면, 순간순간 의 이익과 명성을 좇아 얄팍한 지식의 앎에 따라 사는 사람이 저차원의 인간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살기 좋아지 려면,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서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슴이 따뜻하고 인 간미 넘치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 람이 많아야 된

다. 얄팍한





에서다.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 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